

OPEC 감산 결정 “국제유가 급등”

석유공사, Dubai유 27.65달러로 상승 ... 2004년 25.80달러로 조정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기습적인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이에 따라 겨울철 난방연료 수요감소로 2월 말부터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석유 시장은 당분간 고유가 현상이 불가피해져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원화환율 절상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경기회복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월10일 현지에서 거래된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전날보다 0.91달러 오른 배럴당 33.87달러로 34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으며 북해산 Brent유도 29.86달러로 0.72달러 상승했다.

중동산 Dubai유는 0.22달러 오른 27.65달러에 장을 마쳤다.

2004년 최고가였던 1월12일 WTI 34.74달러, 1월13일 Dubai유 29.73달러, Brent유 32.08달러보다는 2달러 가량 낮은 수준이나 베네주엘라 노조 파업, 미국-이라크 전쟁 등으로 얼룩졌던 2003년 평균가격(WTI 31.11달러/Dubai유 26.79달러/Brent유 28.70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뉴욕선물시장(NYMEX)의 3월물 WTI와 런던선물시장(IPE)의 Brent유는 각각 1.04달러, 0.22달러 오른 33.87달러, 30.04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 급등은 OPEC 회원국들이 제129차 총회에서 생산쿼터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하루 100만배럴의 감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OPEC은 4월1일부터 현재 2450만배럴인 1일 생산쿼터를 2350만배럴로 줄이고 생산쿼터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결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3월 계약 공급자에게 생산쿼터 감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OPEC의 조치는 회원국들이 공식 쿼터보다 150만배럴을 초과 생산해 온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추정 생산량(2600만배럴)에서 1일 250만배럴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가가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OPEC이 결정을 내린 것은 계절적 비수기를 앞두고 미리 공급물량을 축소함으로써 급속한 국제유가 하락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공사는 OPEC의 기습적인 감산 결정이 내려진 뒤 2004년 유가 전망치를 Dubai유 기준 24-25달러 선에서 25.8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석유공사는 “2003년 9월에 이은 OPEC의 감산 결정은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점을 주시할 때 OPEC이 배럴당 25달러 이하의 유가 수준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또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등 하락요인이 있지만 2003년처럼 전쟁불안 해소 등 드라마틱한 요인이 없어 당분간 고유가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캠프리지에너지연구소도 2004년 말까지 WTI 가격이 배럴당 30달러 이상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고유가는 동절기 난방수요 감소가 본격화되는 4월 이후 다소 하락하지만 예상했던 큰 폭의 내림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Chemical Journal 2004/02/12>